

비인간화의 요소

나면서부터의 소경을 / 본 사람들이
저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문제가 있
다. 그것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면서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만일 그가 저를 만났다면 소경
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
이다. 무엇이 이 둘사이를 가로막고
나? 그것은 어떤 불행은 죄값이라
관념 때문이다. 이 관념이 두사람의
이를 가로 막아서 비인간화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고침을 받
려고 예수에게 접근했다. 사람이
그의 고침을 받기를 바랄 것이면
침을 받으면 더불어 기뻐해야 할
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한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그
사람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를 고침 해
를 주일 생각을 굳혔다. 무엇이 그
을 비인간화했나? 그것은 기준법(의
식일법)이 두사람의 사이를 가로막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주했으려
도 만나지 못했다.

세상에서 나오자가 된 죄인들이
수에게 접근했다. 저들에게 새사람
길이 열린 것이다. 저들이 그를 통해

사람사이의 화해

안

병

무

△한주신학대학 교수 V



<필자>

새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
가? 그러나 바리새인과 법률학자
는 예수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
는 것을 비판하는 눈초리만 날카롭
혔다. 무엇이 저들을 비인간화 했
? 저들의 제급의식이 두 사람의 사
를 가로막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마주하면 서로
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상정이다.
그런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이웃 또는 (너)로
대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증오,
가까서는 원수로 만들게 한다. 관
지존법 또는 사회제도에서 온 계
의식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들이 가진자와 가난한자, 남자와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지방사
민족사이, 피부색 사이를 가로막
서 서로 질시, 증옌, 나가서는 전
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엄숙히 들어야 할 것
그러한 관념이나 인습 또는 사회
로 따위를 절대사 하므로 그런것들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위편하는가
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대세위 사
을 경리하는 사람들이 자기자신에
해서도 그렇게 엄격한가?

우리는 자기눈의 돌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의 티를 보고 탄하는 인간
을 알고 있으며 자기는 행하지 않

고 남은 기존의 것으로 가혹하게 비판
하는 인간성을 알고 있다. 무엇이 사
람을 이렇게 만드나? 그것은 이기주
의(利己主義)가 하는 일이다.

나와 너

마틴 부버는 사람의 관계를 두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하나는 “나와 너”
의 관계요 또 하나는 “나와 그”의 관
계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마주
한 상대방을 산 주체(主體)로 대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주체듯이 또한
나의 주체다.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
으면 “너”에게도 욕구가 있다. 너의
욕구는 나의 욕구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욕구가 너를 관찰해서
도 안되고 너의 욕구가 나를 관찰해
서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너”가 없
어져거나 “나”가 없어진다. 참 나의
너는 적나나하게 마주하므로 이미 지
닌 어느 하나가 관찰되어 다른 하나
를 청복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된 나
므로 전혀 다른 제3의 것을 창조하
야 한다. 이것을 만남이라고 한다. 그
럴때 둘은 둘이면서 제3의 것에서
나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때 산 “너”가 아
니라 “그(it)”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나를 마주한 주체가 아니라 나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물(物)이 된 것이다. 이런 관제는 내가 이용할만한 개체가 있는 동안만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 때는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갈아 치우게 된다.

이것은 나중심적인 삶의 자세가 이룩하는 일이다. 자신을 온통 “욕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람을 욕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과 사람에게서 이 욕심들이 충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물(物)로 만드는데서 한걸음 나아가는 일부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누가 내 좋은 이웃이나? 누가 내 친구나? 라고 찾을 경우 언제나 누가 나를 위해 있어주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내 친구가 되겠다. 이것은 나중심적인 일의주의에 의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나 언제나 주체로서 “너”로 대해야 한다. “너”를 물(物)로 이용하면 어찌할 불능을 당한다. “너”를 너로 대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일이며 그러므로 “나”도 그와 함께 “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다른 것들이 “담”이 되어 그 것이들 카르막아서 서로 비인간화되며 그러므로 서로 그토록 갇힌 채 질 수 있다. 어떻게 할까?

예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념으

로 ‘담을 쌓고 있는 이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낯은 관념의 담을 무너뜨린다. 낯은 관념에서 인간을 대하는 것은 담이 된다. 이같은 낯은 관념에서 탈출하는 길은 사람을 미망의 가능성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과의 담은 인습적인 것을 사람보다 우위(優位)에 두면서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음으로써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며 그것을 가로막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존질서에서 “죄인”으로 간주하여 차단하는 자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존질서에서 가진 기득권을 부정해 버림으로써 제3적 담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화해자 그리스도

에베소서에는 화해의 편지로 유명한다. 그중 2장 11절 이하는 그리스도

사람사이의 화해를 위해 무엇을 했
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심
이다. 그는 유대사람과 이방사람 사
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로 만드시고 서로 원수된 것을 자기
몸으로 해소 시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사람사이의
화를 원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답이
엇인가? 그것은 “여러가지 조문으
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것은 바
리교리적 관념, 안습법, 또는 기득권
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간
사의 답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
는 남은 것, 지금까지의 조건들에
탈출하지 않고는 원수된 사이의
화의 길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막힌 담만 헐면 자동
으로 화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남은 조건에서 해방됐다고 해도
간과 인간만이 마주하면 또다시 새
담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가 주어져야
한다. 한 목적을 향할 때 둘이 그 안
에서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는 “성
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
족”이란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뜻
이다.

공동의 목표를 못가진 인간사이에
는 궁극적인 화해는 오지 않는다. 무
엇에서(from) 무엇으로(to)가 뚜렷
할 때 사람은 이웃을 언제나 “너”로서
대할 수 있다. 마주 앉아서 서로 무
엇을 기대하는데 화해는 지속되지 않
는다.

참 화해의 인간관계는 “공동무”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함께 한 목표
를 향해 가는 길에 서로 돕고 밀어줄
때에 화해의 관계는 지속된다. 그리
스도는 바로 이러한 길을 제시한 분
이라는 것이다.

신애균 자서전

할머니 이야기

< 신 애 균 저 >

432면 / 1,500원

신 학 교 재

오늘의 시편연구

문 회 석 편

328면 / 1,000원